

7/7 (민 9:15-23)

우제윤

제목: 동행하시는 하나님

1)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2) 하나님과 하나된 백성

한줄요약: 하나님의 발에 맞추어 나아갑시다.

참고: WBC주석, HOW주석, 매일성경전집

어렸을 때 시절 운동회를 하면 부모님과 함께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운동회를 하는 이유는 공동체의 단합을 이루고 합을 맞추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 부모님과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2인3각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어서 합을 맞추지 않으면 결승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의 열정이 너무커서 자녀의 걸음을 고려하지 않으면 자녀는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자기 마음대로 뛰어가면 부모가 함께 가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말씀도 동일합니다. 출애굽한 후 둘째 해 첫 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이 때 구름이 성막을 덮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임하여서 자기 백성과 밤낮으로 함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항상 함께 하시는 여호와와 명령과 혼연일체가 되어 광야 길을 떠납니다.

광야 길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와 명령에 따라서 길을 떠나고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오랫동안 이동하지 않았고, 구름이 하루 만에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하루 만에 떠났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길을 재촉하거나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서슴치 않고 따라가고 그 따라가는 행동에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영원히 함께 살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며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발을 맞추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을 맞추어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축복된 길입니다. 주님이 가자고 하실 때 쉬어야 한다고 된다면, 주님이 쉬라고 할 때 간다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내 마음이 조급하여 주님보다 앞서게 된다면 그 길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험난한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는 인도하시는 인도자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7/14 (민 14:26-38)

우제윤

제목: 불신앙의 결과

1) 내뱉은 말

2) 경외의 대상

한줄요약: 나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가?

참고: WBC주석, HOW주석, 매일성경전집

사람을 만날 때에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 정해집니다. 부모와 자녀, 선생과 제자, 친구와 나 등 다양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이 여러 가지 관계에서 친밀도가 높다면 좀 더 편하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친밀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 정해진 관계를 훌쩍 놓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사람과 친하더라도 지킬건 지키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한다면 ‘관계적 위치’일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적 위치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였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왜 그 땅으로 인도하여서 우리를 칼에 죽게 만드나면서 원망을 하던 것이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처럼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투덜거렸던 백성들은 제외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가게 되고 처자들이 사로잡힐 거라며 원망하는 사람은 그들은 빼고 유아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정탐한 날을 1년으로 잡아 그들이 40년동안 방황하고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평과 마음의 완고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격분시켰던 백성들은 자신들이 내뱉은 그 원망의 말대로 고스란히 그 결과를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경외’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구, 아버지, 위로자 등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경외’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는 어쩌면 그들의 ‘믿음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에 그들은 원망을 하였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이 나오고 있다면 나의 믿음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믿음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을 통해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21 (민 21:4-9)

우제윤

제목: 여호와를 힘 입으라

1) 마음이 상한 백성

2) 다시 나아간 사람들

한줄요약: 여호와와 능력을 힘 입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참고: WBC주석, HOW주석, 매일성경전집

호르마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로 가게 됩니다. 그 가는 길이 가까운 길을 뚫고 에돔 땅을 돌아서 가는 하나님과 모세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마음이 조금해졌다', '참을성이 없어졌다'는 뜻으로 백성들이 고통을 참지 못했음을 보여 줍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셨지만 눈 앞에 보이는 가까운 길을 뚫고 먼 길을 가는 하나님을 보면서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원망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만나조차도 이제는 하찮게 여기며 혐오스러워 했음을 보여줍니다.

영화를 보면 '명대사'가 꼭 등장하게 됩니다. 그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라는 말인데요. 선의의 표현으로 한 행동이 어느정도 지속이 되니까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권리'라고 생각하게 된 의미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의를 베푸셨던 하나님에게 그들이 대하는 태도는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주셨던 은혜를 또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라는 죄에 대한 징계인 '불 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봐서야 다시 하나님께 나아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에 대한 부분을 '눅 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는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나의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고 이끌어오신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호의를 베푸셨는지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끌어오셨는지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눅 뱀이라는 징계를 받게 되었죠. 이 때 이스라엘 백성 중 정신을 차린 사람들은 모세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주시리라고 믿었다면 실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수기를 지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의지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가 없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호와를 힘 입어야' 합니다. 불 뱀을 통하여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이제는 나의 믿음과 나의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와 능력을 힘 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7/28 (민 27:12-23)

우제윤

제목: 여기까지라고 하시면

1) 들어가지 못한 모세

2)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한줄요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복종하는 성도가 되자

참고: WBC주석, HOW주석, 매일성경전집

찬양중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거기 가사를 보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할 때면 이것이 간단하게만 들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면서 말씀을 기다리는 자세는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 들이는 모습이 필요해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40년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의 지도권이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인정한 온유한 사람인 모세는 지도권을 계승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과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지만 하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허탈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트리바 물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만약, 모세가 땅에 들어가게 되었더라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모세가 받을 가능성이 컸고 사람들의 강권으로 모세 종교가 생겨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나 하나님은 모세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조용히 부르시는 최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선택에 있어서 모세는 어떠한 반론도 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명이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거기서 멈출 줄 아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넘겨주면서 같이 알려준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를 향해 이스라엘이 복종하였듯이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복종할 것을 서약하라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하십니다. 이제 모두가 하나님께 복종하겠다는 것을 서약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해의 영역에 있어서 나의 생각의 범주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신다면 거기서 멈출 줄 아는 복종의 자세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할 때 우리가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